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갈뱅 신학에서 인간과 악의 기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문 두 진

갈뱅 신학에서 인간과 악의 기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지도 현요한 교수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문 두 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조직신학 전공

2008년 1월

문두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 현 요 한 교수 _____ 인

부심 : 교수 _____ 인

부심 :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2008년 1월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2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번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에 애써주신 현요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필자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주시고, 논문 내용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기도로, 훈계로, 가르침으로 도움을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와 이 논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베필로 나의 옆을 항상 지켜주며 도와주었던 사랑하는 아내 문혜란 목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나보다 앞선 지성과 영성과 심성을 가진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보물인 사랑하는 딸 예슬이에게도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문 두 진

목 차

I. 서론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방법	2
II. 갈뱅의 신학형성 배경	3
A. 시대적, 사회적 배경	3
B. 생애	4
C. 회심	7
D. 사상적 배경	9
III. 갈뱅 신학의 특징과 예정론	13
A. 갈뱅 신학의 특징	13
1. 갈뱅 신학은 성경적이다	13
2. 갈뱅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13
3. 갈뱅 신학은 조직적이다	14
B. 갈뱅의 예정론	14
1. 예정과 예지	15
2.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16
3. 선택과 유기.....	16
IV. 갈뱅의 인간이해	19
A. 인간의 하나님 인식과 자기인식	19

1. 인간의 하나님 인식	19
2. 인간의 자기 인식	22
B. 갈뱅의 인간이해	23
1.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	23
2. 영혼과 육체	25
3.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28
4. 갈뱅의 인간관의 의의	30
V. 갈뱅의 죄론	32
A. 원죄	32
1. 원죄의 결과	32
2. 죄의 본질	33
B. 죄와 자유의지의 문제	36
VI. 갈뱅신학에서 악의 기원 문제	39
A. 악의 종류	39
1. 인간으로부터의 악과 고난	39
2. 마귀로부터의 악과 고난	40
a. 갈뱅의 마귀론	40
b. 마귀로부터의 악과 고난	42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악과 고난	43
B. 두 가지 논쟁점	46
1.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신가	46
a. 갈뱅의 의견	46
b.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	48
2. 왜 악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가	50

VII. 결론	52
A. 요약	52
B. 제언	53
참고문헌	58

I. 서론

A. 연구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를 갖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문제 중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의 문제와 이유없는 고통의 문제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난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것은 현대 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난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종교개혁 신학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였다. 종교개혁 신학, 특별히 갈뱅의 신학 가운데 이 같은 질문들이 어떻게 제기되고 어떻게 답변되는지 살펴보고 그 답변 중에 오늘날에도 의미 있고 의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종교개혁 신학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전 사상이라 현대의 그것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했던 갈뱅의 사상 속에 현대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갈뱅의 인간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갈뱅이 생각하는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써의 인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것이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형상을 오염시키게 된 원인과 그로써 생긴 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어서 악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 악의 기원을 인간으로부터 오는 악, 마귀로부터 오는 악에 대해 알아보고 그 기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의 주제인 악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칼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서술할 것이다. 그 후 이러한 칼뱅의 사상에 나타나는 교훈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교훈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B. 연구 방법

칼뱅의 인간관과 악의 기원을 조사함에 있어 쓰이는 자료로는 칼뱅의 『기독교강요』를 제1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칼뱅의 성경 주석을 주 자료로 사용하면서 그의 설교문도 참조하도록 할 것이다. 그 외 2차 자료로는 방델(Francois Wendel), 니젤(Wilhelm Niesel), 토랜스(T. F. Torrance), 최윤배, 박해경, 이오갑 등의 책과 논문을 참고할 것이다.

본 논문은 칼뱅의 인간관과 그가 생각하는 악의 기원,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뤄지는 악의 활동에 대해 서술한 후 칼뱅 신학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그 전개 방법을 살펴보면 제 I 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제 II 장에서는 칼뱅의 신학형성의 배경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칼뱅 신학의 주제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예정론을 중심으로 하여 칼뱅 신학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제 IV 장에서는 칼뱅의 인간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 제 V 장에서는 칼뱅의 죄론, 특별히 원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죄와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제 VI 장에서는 악의 종류와 기원,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성에 대해 알아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칼뱅 신학의 문제점과 오늘날의 의의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 VII 장에서는 요약과 제언으로 결론을 짓고자 한다.

II. 갈뱅의 신학형성 배경

한 사상가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학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배경들이 사상가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면 신앙적 배경이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사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갈뱅의 신학 형성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러한 신학 형성의 배경을 통해서 갈뱅이 악의 기원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상을 펼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시대적, 사회적 배경

갈뱅이 태어난 곳은 1509년 7월 10일 파리 북동부 피카르디의 노용(Noyon)이었다. 이 시대는 두 가지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다. 하나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1300년경부터 일어난 르네상스 휴머니즘 운동이었다. 이것은 중세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 중심이었는데 반하여 인간성에 대한 연구였고 인간에 대한 재발견 운동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5세기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움직임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 잉글랜드의 위클리프(John Wycliffe)와 보헤미아의 후스(Johannes Huss)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운동은 15세기 후반에 가서 많은 개혁자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15세기의 후반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태어난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독일 개혁운동의 중심인물인 루터(Martin Luther)가 태어났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Ulrich Zwingli)와 외콜람파디우스(Johann Oecolampadius)가 태어났다. 또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갈뱅의 선배로서 활동하던 부처(Martin Bucer)가 태어났다. 특히 파리에서는 1510년대에 에라스무스와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동시에 기존 교회와 신학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도 오래 계속되었다.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뱅이 성장하는 동안 여전히 전통적인 신학과 교회가 건재하였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B. 생애

깔뱅의 집안은 사실 좋은 집안은 아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나무통을 만드는 사람이자 뱃사공이었다. 그리고 그의 외조부는 여관 주인이었다. 하지만 친아버지인 제라르(Gerard Cauvin)는 성공적인 법률가가 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켰다. 그는 주로 지역 유지들과 성당의 성직자들을 고객으로 법률 업무를 보았다.²⁾ 베자(Theodorus Beza)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판단력이 예리하고 지혜에 있어서 특출하였으므로, 그 지방의 고급 귀족들과 교직자들에게 두터운 존경과 신임을 받았다"³⁾고 한다. 어쨌든 친분 관계의 부수적인 이득은 깔뱅에게도 미쳐 그는 드 몽모르(De Montmors) 귀족의 아들들과 함께 가정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또한 성당의 지도 신부의 직임을 한두 가지 맡았는데, 이는 대학에서의 장학금의 역할을 담당했다.

제라르는 자신의 아들이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을 계획했다. 파리 대학에 다닌 것도 이 같은 일자리를 위해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인문과학을 배운 후에 계속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9년간 더 공부할 예정이었다. 그 후 그는 드 몽모르의 후견과 자신의 달란트를 등에 업고 더 높은 출세가도를 달릴 것으로 여겨졌다.⁴⁾

깔뱅은 1523년 파리대학교의 마르쉬 대학(La marche)에 입학하였다.⁵⁾ 거기에서 그는 인문주의자 꼬르디에(Mathurin Cordier) 교수에게서 라틴어를 배웠는데 그 기간은 비록 짧았으나 그의 일생에 커다란 축복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가 받은 영향은 컸다.⁶⁾ 그리고 수개월 후 그는 몽뎬귀 대학으로 전학하여 엄격

1)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112.

2) 위의 책. 421.

3) 주재용,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26.

4)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421-22.

5) 위의 책. 161.

6)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8), 13.

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서 중세 유명론적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특히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윌리엄 오컴(William Ockham), 가브리엘 비엘(Gabriel Biel)의 저서를 열심히 읽었다.⁷⁾ 여기서 배운 지식들은 후일 그에게 큰 영향을 주는 학문과 철학이었다. 어쨌든 깔뱅의 인문학 과정은 1520년대 중반쯤에 거의 성취되었다. 이제 깔뱅은 그 시대의 철학에 능숙하고 본격적인 신학 연구를 시작할 자질을 갖춘 뛰어난 학자이자 라틴어 연구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 왜냐하면 아버지 제라르가 아들 깔뱅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법조계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착실한 아들이었던 깔뱅은 묵묵히 순종했다. 깔뱅은 1527년 말 또는 1528년 초에 학교를 졸업하고 문학석사 학위(M.A.)를 받은 후 오를레앙(Orleans) 대학으로 옮겼다. 이곳은 인문주의의 중심지였다. 당시의 가장 명성이 높은 법률가 레뚜왈르가 있었고,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들이 교편을 잡았던 곳이었다.⁸⁾ 여기에서 그는 법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거기서 깔뱅은 법학만 공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초대교회 교리와 교리사에 대한 특별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⁹⁾ 그리고 그는 이 대학에서 볼마르(Melchior Wolmar)를 만나 그리스어를 배웠고,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에 대해서도 배웠다.¹⁰⁾ 그러나 이 시기 이러한 학문은 그가 흥미를 갖지 못했던 분야였기에 때문에 약간의 성취만을 거두고 마쳤다. 하지만 후일 그에게 이 시기는 문예부흥 이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주었고, 복음적 신앙에 눈을 뜨게 해 준 시기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¹⁾

이 무렵 예술과 학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영향은 전 유럽에 널리 미치고 있었다. 즉 헬라어는 학자가 갖추어야 할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꾸준히 그 자리를 잡아갔다. 그리고 인쇄 기계는 헬라와 라틴의 고전들을 값싸게 공급해 주었다. 그 결과 이미 헬라어 신약 성경이 6권이나 나와 있었으며 히브리어 구약 성경도 비슷한 정도로 나와 있었다. 깔뱅 역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 때 헬라어를 익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히브리어도

7) 위의 책. 14.

8) 주재용,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32.

9) 위의 책. 15-16.

10) 이종성, 『칼빈』, 17.

11)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422.

익혔다. 그는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고전을 널리 읽었고, 그가 익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플라톤을 접목시켰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을 가까운 친구로 사귀었다. 더 나아가 그는 세네카가 쓴 라틴어 논문을 편집하고 주석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 최초의 책은 그가 22세 되던 1532년에 출판되었다.¹²⁾

또한 그는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 루터의 글들에 사로잡혔었다. 그래서 그는 “루터교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대학에서 가르치기 위해 다시 돌아온 파리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 전역의 이곳, 저곳을 숨어서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국에는 프랑스를 떠나야만 했다. 그래서 칼뱅은 바젤로 망명했다. 여기에서 그는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면 항상 수식어처럼 붙어 다니는 책인 『기독교강요』를 출판했다.¹³⁾

그 후 1536년 칼뱅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약간의 친구들을 데리고 자유의 도시 스트라스부르그로 가기 위해 제네바에 머물렀다. 그런데 칼뱅이 그 도시에 와 있다는 소식이 교회 지도자인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칼뱅을 찾아갔다. 칼뱅은 파렐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했다. 하지만 18개월 후 파렐과 칼뱅은 제네바로부터 추방당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칼뱅은 파렐의 새로운 탄원을 받아들여 제네바로 돌아왔다. 1541년 제네바로의 귀환은 그가 처음 그 도시로 들어갈 때와는 사뭇 양상이 달랐다. 처음 방문했을 당시 그는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부처(Martin Bucer)와 멜란히톤(Philipp Melancthon)과 같은 지도적인 개혁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제네바에서 교회를 다시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1559년에는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제네바 교육을 정착시켰다.¹⁴⁾

1559년 그는 『기독교강요』 최종판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1536년판과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1559년 이후 그에게는 5년여의 시간만이 남겨졌을 뿐이었다. 그 시기는 칼뱅에게는 가중되는 질병과 쇠약의 시기였다. 그럼에도

12) 위의 책. 422.

13)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423.

14) 위의 책. 424-26.

불구하고 그 시기는 지칠 줄 모르는 수고의 시기이기도 했다. 갈뱅은 다시 기독교 강요를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썼으며 이것 역시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1564년 2월이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설교하고 강연하고 일상 업무들을 수행했다. 그 이후 그는 급속히 쇠약해져 3개월 후 사망했다.¹⁵⁾

C. 회심

1531년 5월26일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의 생애에 큰 전환기가 되었다. 이제 그는 외적 압력에서 해방 받아 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특별히 관심이 있는 고전학에 몰두하였다.¹⁶⁾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갈뱅은 세네카 주석을 낸 후, 예기치 못한 회심(unexpected conversion)을 경험하였다. 그는 시편 주석 서문에서 자기의 회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어둡고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끌어올리셨으며, 나에게 가장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자와 복음 사역자의 직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공부시킬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보다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는 철학을 공부하다가 법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비밀스러운 섭리의 고삐로 나의 진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습니다.

제일 처음 일어난 일은 예기치 못한 회심으로 다년간 완악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순하게 길들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교황제의 미신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못한 그 무엇으로는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참 경건의 맛을 본 것이 그 안에서 진보하려는 나의 갈망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전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의 공부는 열심을 잃은 채 냉

15) 위의 책. 428.

1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95.

랭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회심한지 일 년도 채 못 된 초보자요 신출내기인 나에게 사람들은 교리를 배우기를 갈망하며 몰려왔습니다.”¹⁷⁾

칼뱅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심 사건이 언제 혹은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칼뱅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회심의 요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였다’ 함과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한다는 것이다.¹⁸⁾ 어쨌든 그는 회심을 통해 경건의 깊은 맛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건의 맛을 아는 신앙은 그로 하여금 회심한 지 일 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갖게 만들었다. 그의 이러한 탐구는 칼뱅 개인의 신앙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회심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회심은 종교적 진리탐구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의 결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⁹⁾

그렇다고 해서 칼뱅이 회심 경험 이후 즉각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회심의 사건은 그의 생의 급격한 사상적이고 행동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나 본격적으로 개혁운동을 시작한 것은 몇 년 뒤에 『기독교강요』를 집필함으로써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힐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칼뱅이 회심을 통해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학문들과 단절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그때까지 그의 생의 목표였던 인문주의와도 단절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까지 인문주의적 가치는 그의 마음에 인간에게 가능한 최고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었다. 특별히 종교와 관련하여 볼 때 고대 인문주의는 모든 종파를 포함할 정도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준비와 접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대철학과 기독교 신앙과의 사이에는 연속선상의 단절이 있음을 깨달았다. 인문주의는 그 정의에서부터 인간의 위대성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그는 이제부터 죄악과 하나님으로 부터의 소외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함을 근거로 그의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²⁰⁾

17)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칼빈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제7권 시편 서문.

18)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186.

19)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구원사상』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2), 124.

그러므로 갈뱅은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인문주의와는 결별하는 전적인 방향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인문주의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적인 방법과 특정한 형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문주의에 머물러 있었다.²¹⁾

하지만 그는 회심 전에는 인문주의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 그에게 있어 인문주의는 하나의 지적 수단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인문주의와 싸우기 위해 인문주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갈뱅은 계속 고대 철학자들을 찬양하였고 여전히 에라스무스와 그의 제자들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통해 그들의 노력과 저작들을 찬양하고 이용하는 것을 사양치 않았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철학자들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했다.²²⁾ 즉 갈뱅은 인문주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계속 지니고 있었지만 또한 그것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개혁자의 반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D. 사상적 배경

갈뱅의 지적인 배경과 영적 성장은 16세기의 정치, 문화의 전성기에 이룩되었다. 그의 몽땀규 대학(College de Montaigu)에서의 수학은 그의 지식이 스콜라주의(scholasticism)에 젖어들게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는 인본주의에 매료된다. 그의 첫 번째 글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De Clementia*)에서 보듯이 갈뱅은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인문주의자 같이 보인다.²³⁾

갈뱅은 스트라스부르그에 체류 기간 중 부처(Martin Bucer)의 도움으로 1539년 8월 기독교 강요의 새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서 주석에도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였다. 갈뱅의 생애와 신학 및 목회 경험에 있어서

20)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총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6), 53.

21) 위의 책.

22) 위의 책.

23) 황영훈, "칼빈 신학의 실천신학적 요소들," 『신학과 실천』 2권, (1998): 175.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생활은 매우 의미가 깊었다. 이형기 교수는 특히 부처가 칼뱅에게 준 영향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칼뱅의 개혁교회적 성례의식이나 예배의식, 교회정치, 치리와 훈련, 그리고 장로제도 등도 바로 부처에게서 배웠다는 것이다.²⁴⁾

또한 칼뱅은 루터의 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칼뱅은 자신이 인정하듯이 루터를 존경하고 그의 작품들을 탐독함으로써 루터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칼뱅의 루터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교리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²⁵⁾ 또한 멜란히톤의 *Loci Communes*, 『신학총론』은 칼뱅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²⁶⁾

1559년 칼뱅이 출판한 『기독교강요』는 아마도 신약성경 이후 교리신학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 책은 개신교 신앙에 관해 알고자 하는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입문서 역할을 하기 위해 쓰여졌다.²⁸⁾ 책의 중심 내용은 그가 진술한 대로 기독교의 기본교리, 곧 경건한 삶과 구원론의 총화이며 자신의 신앙고백서로서 프란시스 1세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다. 칼뱅은 후에 그 작업을 시작했을 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누구든지 참된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약간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는 특별히 우리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 그 작업에 몰두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지만 정작 그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²⁹⁾

워필드(Benjamin B. Warfield)는 그의 저서 『칼빈과 어거스틴』(*Calvin and Augustine*)에서 그의 신학적 위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종교개혁운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서,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 신학

24)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276.

25)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총서』, 144.

26) 위의 책. 145.

27)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63.

28)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423.

29) 위의 책. 424.

의 전체 발전의 기초이며, 복음적 사상에 대해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겨주었다. 즉 그는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여 위대한 기독교 신조를 신봉한다는 것과, 국가의 정치 질서에 충성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률을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책을 저술한 후에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개혁주의 신앙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다.³⁰⁾

그런데 워필드는 갈뱅 신학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어거스틴을 거론하며 갈뱅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헨리 미터(Henry Meeter)는 "갈뱅의 교의들은 ...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³¹⁾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갈뱅 사상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정받는 내용으로, 갈뱅은 그 바탕이 어거스틴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³²⁾

이제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갈뱅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받은 영향을 정리해보자. 회심 이전에 그의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것은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더불어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의 신학이었다. 그러나 회심 이후에 인문주의와 결별하고 가톨릭의 전통에서 돌아서면서 그는 이미 그보다 앞선 개혁자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갈뱅은 에라스무스(Erasmus) 등의 인문주의자들의 방법론이나 표현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상적으로는 이미 그들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갈뱅은 그가 인정하듯이 루터와 멜란히톤의 영향을 받았으며 부처로부터 받은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갈뱅 신학 주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갈뱅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러면 이와 같

30) Benjamin B. Warfield, *Calvin. Luther. Augustine*,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루터·어거스틴』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8), 53.

31) Henry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3), 87.

32) Reed, R. C., *The Gospel as Taught by Calvin*. 홍병창역,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5), 86.

은 생애와 사상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악문체의 근간이 되는 그의 신학적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Ⅲ. 갈뱅 신학의 특징과 예정론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갈뱅은 에라스무스 등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루터, 멜란히톤을 비롯하여 부처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그의 신학적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필자가 논하려고 하는 악의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갈뱅 신학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갈뱅의 여러 신학 사상 중 특히 악의 기원과 비교적 관련이 있는 예정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A. 갈뱅 신학의 특징

1. 갈뱅 신학은 성경적이다

갈뱅의 신학체계 수립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성경은 그에게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며 규범이었다. 갈뱅 신학의 특징은 "전체로서의 성경"의 이해의 실제적 동기에서 축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계시로서의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려고 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의도에 대해 갈뱅은 성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읽는 자에게 성서의 안내서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갈뱅 신학은 그 권위의 기초를 성서에 두는 성서 중심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2. 갈뱅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갈뱅의 신학은 무엇보다 신 중심,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갈뱅은 인문주의의 교육을 받았고, 이것은 그의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갈뱅은 인문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그의 신학 사상을 펼쳐 나가려고 노력한 사상가이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살펴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신학을 펼쳐나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 갈뱅 신학은 조직적이다.

갈뱅은 루터, 츠빙글리를 잇는 종교개혁자이다. 그는 루터와 츠빙글리가 닦아 놓은 터 위에서 개혁을 이어가며 완성해 나간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두 개혁자를 비롯한 선대의 종교개혁자들의 초기 유산을 물려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켜 나간 종교개혁자이다. 다시 말해 루터와 츠빙글리가 새로운 개혁의 기초를 이룬 사상을 만든 사상가라면, 갈뱅은 그것을 조직한 개혁자이다.

이처럼 갈뱅은 어거스틴, 루터 등의 관념을 이어받으면서도 그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내용이 첨가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입장에서 갈뱅은 법과 질서와 훈련에 관심을 두었고, 개혁에서 산출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용을 조직적으로 『기독교강요』에서 서술하는 것에 힘을 썼다.

B. 갈뱅의 예정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신학은 성서 중심적이고, 신 중심적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신학의 출발점은 그의 회심이 가져온 체험에 있다. 이와 같은 신학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예정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예정론을 살피는 이유는 이 내용이 악의 기원을 알아보는데 있어 관계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정론에 대해 갈뱅은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 주실 사람들을 오래 전에 확정하셨다”고 말한다.³³⁾ 이것이 예정에 관한

33) Jea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III. 21. 7. (아래부터 *Institutes* 로 표기하고 권, 장, 절은 I. 1. 1과

주요 논지인데, 예정에 관한 문제를 논하면서 갈뱅은 신문보다는 교회론과 연관시켜 논하고자 한다.³⁴⁾ 특히 갈뱅은 예정을 그리스도와 사역에 연관시켜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보다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로 볼 때, 예정 문제는 오직 은혜를 통한 칭의 교리를 확실히 밝혀주고, 교회론을 위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³⁵⁾

1. 예정과 예지

갈뱅은 예정론을 논함에 있어 예정과 예지 사이의 차이점을 매우 강조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고 올바르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지에 따라 이것은 선택하시고 저것은 버리신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혼란케 한다. 우리가 예지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항상 그분의 관찰 아래 있어 왔고, 또 영원히 그러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만물을 마치 자신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서 그대로 취급하고 바라본다. 이러한 예지는 이 세상 어디에나,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예정을 각 개인에게 그가 행하실 것을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인간을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명하시기 때문이다.³⁶⁾

예지와 예정의 이러한 차이점은 갈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예지와 예정의 차이를 언급함으로 선택이 절대적인 은혜의 특성임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예정 안에서 유기와 마찬가지로 선택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인 것이다.³⁷⁾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34) *Institutes*, I. 15. 8.

35) Francois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김재성 역, 『갈빈』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325.

36) *Institutes*, III. 21. 5.

37) 위의 책.

2.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갈뱃에게 있어서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처럼, 선택도 바로 그 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그의 능력 안에서 선택에 참여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보자로서의 능력 안에서 이 선택의 장본인으로 이중의 역할을 하신다.³⁸⁾ 선택이 그리스도에 근거한다는 사실에서 갈뱃은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더 이상 그 분의 선택에 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다.³⁹⁾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서 선택하신 자들에 관해서, 그들 속에서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실 수 없으며, 그들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여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맡기는 영예를 베푸실 수 없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자들을 연합하시고, 그분께서 한 몸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모든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우리가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강하고 명백한 증거를 갖게 된다.⁴⁰⁾

3. 선택과 유기

선택의 논리적 반대 개념은 유기로서 제시되어진다. 갈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로부터 일정한 수의 사람만을 택하여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선언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또한 특별한 작정의 대상, 즉 유기 대상이었다고 생각하였다.⁴¹⁾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38) *Institutes*, III. 22. 7.

39) 위의 책.

40) *Institutes*, III. 25. 5.

41) *Institutes*, III. 23. 3.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공의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같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두를 버려두지 않고 은혜로 선택함으로 그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이다. 하나님의 결단은 그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 숨어있다.⁴²⁾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질문 속에 종속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해한 비밀과 함께 일해야만 한다.⁴³⁾

칼뱅은 이러한 심판은 불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의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은 유기의 작정에 관한 불가해성을 완전히 주장하는 한편, 버림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의하여 정당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⁴⁴⁾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미리 정해질 만큼 무가치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그들이 파멸하게 되는 것은 정당하고도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그들의 파멸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나오는 바, 그 원인과 내용이 그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된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그 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는, 그의 의로움을 생각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은 반드시 공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되도록 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패 때문에 인간은 넘어지는 것이다.⁴⁵⁾

칼뱅은 유기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감추어져 있는 신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자들의 안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뜻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그것의 공허하심도 강조하는데 기여한다고 칼뱅은 말한다.⁴⁶⁾

42) *Institutes*, III. 23. 4.

43) *Institutes*, III. 23. 7.

44) *Institutes*, III. 23. 8.

45) 위의 책.

46) Francois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342.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갈뱅이 타락과 유기에 대해 말하면서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위에 언급된 인용문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본 논문의 주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제는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뱅의 인간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V. 갈뱅의 인간이해

앞 장에서 우리는 필자의 주제와 관련된 갈뱅의 신학 사상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이 장에서는 갈뱅의 신학 사상과 그 특징이 그의 인간관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것은 필자가 주요 중심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악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갈뱅의 사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증심주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뱅은 인간이해 역시 인간 편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이해로부터 전개해 나간다. 갈뱅은 하나님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돌려, 자기가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바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 중 어느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⁴⁷⁾

즉 갈뱅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인간 이해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⁴⁸⁾ 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뱅의 주장이 따라 우리도 인간 이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 이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처음으로 인간의 하나님 인식과 자기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인간의 하나님 인식과 자기인식

1. 인간의 하나님 인식

47) *Institutes*, I. 1. 1.

48) *Institutes*, I. 1. 2.

갈뱅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 인식 즉 자연 계시를 통한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인식의 방법이다.⁴⁹⁾ 이러한 하나님 인식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단순히 객관적 지식 내지 지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예배를 내포하는 실재적 이해”⁵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갈뱅은 하나님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순히 하나님 존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앎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으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바지하며 결론적으로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⁵¹⁾

하나님 인식에 대한 방법으로 갈뱅은 먼저 자연적으로, 즉 누구나 인간이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을 주셨음을 인정한다. “인간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이 있다.” 이는 자연적 본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은 ‘종교의 씨앗’이다.⁵²⁾ 이에 대해 이형기 교수는 『종교개혁신학사상』에서 “이는 인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기 이전에 이미 가진 종교성으로서, 양심의 빛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심의 자세를 가다듬는 태도를 의미한다.”⁵³⁾고 말한다.

이러한 ‘종교의 씨앗’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많은 종교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종교의 씨앗을 말하는 갈뱅에게 있어서 종교란 임의의 창작물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인식의 보편적 증거이다.⁵⁴⁾

다음으로 갈뱅은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구조를 통하여 그의 완전함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이를 밝혀 보여줌으로써 눈만 뜨면 그를 보지 않고서는

49) *Institutes*, I. 1. 6.

50) *Institutes*, I. 1. 2.

51) 위의 책.

52) *Institutes*, I. 3. 1.

53)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76.

54) *Institutes*, I. 3. 1.

견딜 수 없게 해주셨다.”⁵⁵⁾

칼뱅은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예술작품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주장한다.⁵⁶⁾ 특히 로마서 1장 19절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진술, 즉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는 말씀은 이를 보다 명백하게 뒷받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칼뱅은 자연계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자연계시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이야기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우주만물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으나, 인간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와 같은 명백한 증언에 눈을 감고 말았다는 것이다.⁵⁷⁾ 그러기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⁵⁸⁾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칼뱅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 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것들을 인하여 그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다.”⁵⁹⁾ 즉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 되고 있는 성서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인식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⁶⁰⁾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 바르게,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되기 때문이요, 또 이들 사역들을 우리의 타락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의 척도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다.”⁶¹⁾ 거기에다 칼뱅은 그 누구도 성경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성스런 교리를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함으로 성서 외의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모든 시도를 봉쇄한다.⁶²⁾

칼뱅은 우리가 성서를 연구하는 목적을 율법과 예언자의 목적이 되시며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위한 것⁶³⁾으로 보고 성서를

55) *Institutes*, I. 5. 1.

56) 위의 책.

57) 위의 책.

58) *Institutes*, I. 5. 14.

59) *Institutes*, II. 2. 6.

60) *Institutes*, I. 6. 3.

61) 위의 책.

62) *Institutes*, I. 6. 1.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달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식케 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즉 성서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자와 같기에 성령의 내적 증거 없는 가운데서의 성서는 이대로의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인 것이다.⁶⁴⁾ 그러기에 성령만을 유일한 성서 해석자로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뱅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예배를 내포하는 실존적 이해로 보면서 인간 내부에 있는 ‘종교의 씨앗’과 자연을 통한 신 인식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적 신 인식을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단지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인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갈뱅은 인간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인간의 자기 인식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뱅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함 없이는 자신의 죄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통해 본다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스스로의 본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인식이 없이는 참된 인간 인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인간으로써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된 인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를 깨닫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복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63) *Institutes*, I, 6, 2.

64)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이종성역, 『칼빈의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73), 23.

B. 갈뱅의 인간이해

이처럼 인간의 자기 인식 방법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갈뱅은 인간 이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갈뱅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자. 이것은 갈뱅의 원죄와 악의 기원에 대한 주장을 이해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은 다른 아닌 창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순서가 있었다. 그 순서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이러한 인간 창조에 대해 갈뱅은 창세기 2장 7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인간의 몸은 흙에서 취하여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그 무엇보다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즉 동물들은 한 순간에 땅에서 생겨났으나 인간은 점진적으로 지어졌다. 바로 이점에서도 인간의 특이한 숭고성이 빛나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로 인간을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게 만들려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왜 순식간에 인간을 땅에서 솟아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겠는가?⁶⁵⁾

즉 이 세상은 어떤 포괄적인 하나의 명령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창조로의 절정을 향해 움직이는 의도적인 순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우주의 창조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⁶⁶⁾고 말하면서 창조론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65)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제1권 창 2:7.

66) *Institutes*, I. 14. 20.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영의 힘으로 천지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신비스런 방법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여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그러한 아름다움과 큰 특권으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표본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다.⁶⁷⁾

이렇게 창조의 순서에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배려가 나타나 있다고 깔뱅은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유익하고 행복하다고 예견한 것은 모두 준비해 놓으신 것”⁶⁸⁾을 뜻한다. 이에 관련하여 토랜스(T. F. Torrance)는 “세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식되어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⁶⁹⁾고 말한다. 그 가운데서 인간은 “인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과 그의 선물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고 사랑하도록 자극을 받는다.”⁷⁰⁾는 것이다.

그러나 깔뱅은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인간은 흠으로 창조되었다”⁷¹⁾고 강조하기도 한다.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는 창조의 결정체로서의 존엄을 말해 주는 동시에 그 기원이 흠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인간이 우월한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멈추고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하나의 진흙의 막 속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몸 역시 흠과 재에 지나지 않는 우리”⁷²⁾로 묘사하면서, 인간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것은 큰 과오라고 말한다.

이같이 창조론 속에 나타난 인간의 위치를 깔뱅은 창조의 결정체로서의 위치와 흠으로부터 지음 받은 비천한 기원을 동시에 말함으로서, 인간 스스로의 존엄을 자각케 할 뿐 아니라, 흠으로 지음 받은 자로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위치를 갖게 한다.

67) 위의 책.

68) *Institutes*, I. 15. 1.

69)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Eugene, Or.: Wipf and Stock, 1997),

70) *Institutes*, I. 14. 22.

71) *Institutes*, I. 1. 1.

72) 위의 책.

2. 영혼과 육체

이처럼 존엄과 비천함을 동시에 가지고 창조된 인간의 구성에 대해 칼뱅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한다.⁷³⁾ 칼뱅이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두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서양 고대 철학의 이원론적 인간론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⁴⁾ 그것은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칼뱅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칼뱅의 신학적 인간 이해는 그의 전반적인 신학 노선과 마찬가지로 인문주의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 칼뱅은 영혼과 육체가 각기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한 인격 안에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⁷⁵⁾ 이러한 이분법적 견해에 대해 혹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영’, ‘혼’, ‘몸’ 개념들이 삼분법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칼뱅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며 그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이것(영과 혼과 몸)은 우리로 하여금 전인의 성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알게 하는 뜻에서 설명 형식으로 덧붙여지고 있다. 성화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흠 없고 순결하게 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온전성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순결이 어느 정도 증대되고, 우리의 불결이 청결하게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은 단순히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이란 인간의 몸속에 거하는 불멸의 영혼을 지칭한다. 그러나 혼에는 이해와 의지라는 두 가지 특수한 기능이 있으므로, 성경은 혼의 능력과 특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따로따로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혼’(soul)이란 정(情)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요 따라서 영혼(spirit)과 반대되는 면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이성 내지는 지력을, ‘혼’은 의지와 모든 정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73) *Institutes*, I. 15. 2.

74) 이수영 “칼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 2권, (1985): 118.

75) *Institutes*, II. 14. 1.

이처럼 갈뱅은 영과 혼의 두 개의 분리된 실체로 보지 않고 영혼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념들로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갈뱅에게 영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해 갈뱅은 "나에게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체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⁷⁶⁾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갈뱅에게 있어서 영혼은 피조된 것이면서도 불멸의 본질인 것이다. 이러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하여 갈뱅은 양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받은 재능, 자는 동안의 활동과 놀라운 환상,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성경 구절을 들어 그 증명을 시도한다.⁷⁷⁾

이처럼 갈뱅은 영혼을 하나의 본질로 본다. 그럼 이런 영혼과 육체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갈뱅은 영혼과 육체를 서로 다른 본질로 생각하면서, 육체보다는 영혼을 고귀한 것으로 본다. 영혼은 영적인 것이어서 육체와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 그것들과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영혼은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인간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육체가 사멸한 후에도 여전히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본질이기 때문이다.⁷⁸⁾

또한 갈뱅은 영혼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육체의 각 부분과 기관들이 힘을 얻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상적 삶에 대한 숙고와 행동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일깨우고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 또한 영혼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⁷⁹⁾

그렇다면 갈뱅에게 있어서 영혼의 능력과 기능은 무엇일까? 갈뱅은 영혼을 두 요소로 구분한다. 그것은 바로 지성과 의지이다. 그에 따르면 지성은 "우리에게 제시되는 모든 것들을 분간하고, 우리에게 인정돼야 하는 것인지, 정제돼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의지는 "오성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선택해서 추구하며, 반대로 그것이 배격하는 것은 내버리거나 피하기 위한" 것이다.⁸⁰⁾ 인간의 지성은 분간하고, 판단하며, 이해하는 능력으로써 영

76) *Institutes*, I. 15. 2.

77) *Institutes*, I. 15. 6.

78) *Institutes*, I. 15. 2.

79) *Institutes*, I. 15. 6.

80) *Institutes*, I. 15. 7.

혼을 주도한다.⁸¹⁾ 동시에 지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아차리게 해주기도 한다.⁸²⁾ 인간은 그 지성 때문에 생각하고 반성하는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 시에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알 수”⁸³⁾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은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스스로를 자신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갈뱅은 지성에 대해 이성과 지각과 감정들이 결부되어 있거나 의존된다고 말한다. 지성과 마찬가지로 이성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다가가며, 관정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그것은 타락 이전의 창조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각과 감정은 지성이나 이성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되거나 복종하는 것들로서 그는 그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성의 문제에서 갈뱅이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성의 남용이나 지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했다는 것이다. 갈뱅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의 지성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성이라는 것은 그 주체인 인간이 지혜와 선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에게 복종할 때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될 때만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⁴⁾

또한 의지에 대해 갈뱅은 지성의 이해 혹은 판단에 복종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상을 분별하는 것이 지성의 임무라면 그것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의지가 맡아서 수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의지는 반드시 지성의 안내를 받아 인도되어야 한다. 만일 지성 없이 의지가 단독으로 행한다면 그 때는 맹목적이 되며, 반대로 의지 없는 지성은 행함 없는 공허한 것이 된다고 갈뱅은 말한다.⁸⁵⁾

그러면 이와 같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지성과 의지가 인간의 삶에서, 특히 세속 영역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갖는 능력의 범위와 그 한계가 어떠한가를 논의해 보자.

갈뱅은 인간의 지성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인식능력이 있어서 이것으로

81) 위의 책.

82) *Institutes*, I. 15. 2.

83)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제1권 창 2:9.

84) *Institutes*, I. 15. 7.

85) 위의 책.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조치가 주어진다고 한다.

지성의 건전성과 마음의 성실성도 동시에 제거되었다. 이것이 곧 자연적 천품의 부패이다. 오성 또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의지력과 함께 다소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력할 뿐 아니라 깊은 암흑 속에 빠진 지성을 완전히 건전한 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인 천품이며,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⁸⁶⁾

그러므로 지성은 선악에 대해서 분간하고 이해하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⁸⁷⁾ 인간은 이와 같은 지성의 능력으로 세속 영역에 속한 것들을 탐구하고 또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깎뎀은 인간의 지성의 기능과 능력은 천상적인 것이 아닌 지상적인 것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⁸⁸⁾

뿐만 아니라 문예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인간 속에 주어져 있어서 수학이나 물리, 논리학, 의학, 철학, 법률 등 학문적인 영역을 통해서 입증되고, 이교도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인간의 탁월함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⁸⁹⁾ 그러므로 깎뎀은 이와 같은 기능과 능력에 의해서 인간사회의 질서가 유지 보존될 수 있으며 또한 문화 발전이 촉진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깎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한다.⁹⁰⁾ 그는 “인간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섰다고 할 때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⁹¹⁾라고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86) *Institutes*, II. 2. 12.

87) 위의 책.

88) *Institutes*, II. 2. 13.

89) 위의 책.

90) *Institutes*, I. 15. 3.

91) *Institutes*, II. 2. 1.

첫째,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인간의 육체의 탁월성에서 찾는다. 그는 인간의 외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⁹²⁾ 물론 그가 “육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영혼과 연합되어 영혼의 자기표현에 적절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질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불멸성에 참여하는 적당한 기관으로서 인간의 신체는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⁹³⁾ 타락 전 인간의 신체는 그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장식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⁹⁴⁾

둘째,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피조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탁월성에서 찾는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른 모든 생물보다 뛰어나게 해주신 탁월성의 표식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⁹⁵⁾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인간의 탁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구 중심으로 창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중심을 지구 위에 두시고 지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서 창조의 절정을 이루셨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별된 소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인간은 예언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다.⁹⁶⁾

셋째, 갈뱅은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발견한다. 물론 그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물의 상속자이며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의 유일한 표시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뱅은 소극적인 태도로 “이것은 사실 매우 작은 부분이긴 하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⁹⁷⁾이라고 하였다.

92) *Institutes*, I. 15, 3

93) 위의 책. 105.

94) *Institutes*, I. 15. 3.

95) *Institutes*, II. 12. 6.

96) A.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 58.

97)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제1권 창 1:27.

아무튼 분명한 것은 갈뱅은 인간의 만물 통치권이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⁹⁸⁾

넷째,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영혼의 불멸성에서 찾는다. 갈뱅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불멸의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주장한다.⁹⁹⁾ 그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함으로 영원히 의식을 지닌 실재로 남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현세에서 영혼의 일시적인 전이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제 일 요소 곧 불멸의 요소는 사람이 사람 되기를 중지하지 않는 한 결코 소멸될 수 없다.

다섯째, 갈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최초의 인간이 보유하고 있던 신적 특성들 안에서 찾는다. 갈뱅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그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담의 타락은 본래 그에게 부여되었던 신성한 특성들을 상실케 만들었다.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너무도 심히 부패되어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¹⁰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뱅은 인간의 육체의 탁월함, 피조 세계 내에서의 뛰어난 위치, 피조 세계에 대한 지배권, 영혼의 불멸성 그리고 최초 인간에게 있었던 신적 특징 등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갈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심으로써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에 참된 지식과 의와 성결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러한 신적 요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

4. 갈뱅의 인간관의 의의

98) 김정훈,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광신대학교 출판부, 1999), 105.

99) *Institutes*, I. 15. 3.

100) *Institutes*, I. 15. 4.

갈뱅의 창조의 관점에서 본 인간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다. 즉 창조된 인간은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인간형이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갈뱅의 인간이해가 상당히 복잡적이며 현실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갈뱅은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써 인간을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갈뱅은 영혼을 중시하고 영혼불멸성을 믿으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찾기도 하였다. 창조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서 가지는 우월성, 지성과 의지를 통해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능력, 자유, 초월성 등을 통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갈뱅은 인간의 육체를 하나의 ‘소우주’라고 보았고, 창조주의 행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다.¹⁰¹⁾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육체에까지 적용시킴으로써 육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때 갈뱅의 인간관은 편협하지 않은 시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갈뱅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갈뱅의 사상을 알아보려 한다. 원죄의 결과와 죄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01)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제1권 창 1:26.

V. 갈뱅의 죄론

A. 원죄

갈뱅은 아담의 불순종이 타락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최초로 창조된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증명해야 했음에도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다. 즉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배반이란 창조자의 지배에 반항하는 것이요, 그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¹⁰²⁾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원죄의 결과

먼저 죄에 대한 갈뱅의 개념정의를 살펴보자. 그는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³⁾ 그 중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를 갈뱅은 ‘원죄(Original sin)’라고 칭하며 그 결과로 인하여 인간 본성에 미친 손상은 인간의 전 영역에 파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원죄는 영혼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전 존재로 퍼져나가 본성을 왜곡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간의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서 한 부분도 죄가 없는 곳이 없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로 여겨지는 것이다.”¹⁰⁴⁾

그러므로 원죄의 결과는 “단순한 의로움의 결여뿐만 아니라 악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능력과 세력을 미치고 있는 것”¹⁰⁵⁾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은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로 인한 손상은 어떠한 부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육과 영혼을 완전히 휩싸고 있다

102) *Institutes*, II. 1. 4.

103) 위의 책.

104) *Institutes*, II. 1. 8.

105) 위의 책.

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¹⁰⁶⁾ 따라서 인간의 본성 왜곡과 부패 정도는 아주 커서 어떤 순결한 부분도 인간에게는 남아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이 정욕과 무감각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2. 죄의 본질

죄의 본질에 대해 갈뱅은 신적 위엄을 무시하고 이에 거스르는 인간의 행동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앙이며, 이것이 죄의 가장 본래적 형태이고 모든 죄를 산출해 내는 가장 으뜸가는 죄이다.¹⁰⁷⁾ 직접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불신앙이 타락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 불신과 더불어 야심과 교만이 아담의 마음속에서 싹터 올랐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버렸기 때문이다.¹⁰⁸⁾

이렇듯 갈뱅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타락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인간의 모습이 곧 원죄인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그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서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를 할 때, 즉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 형상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⁰⁹⁾

이제 죄의 개념을 보다 깊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죄에 대해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담은 그것(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므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자발적인 복종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명의 열매를 먹는 한 영생의 희망을 그에게 주시고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맛보는 순간 두려운 죽음이 선고된

106)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제7권 시 19:37.

107) *Institutes*, II. 1. 4.

108) 위의 책.

109) *Institutes*, I. 15. 3.

다는 약속은 그의 신앙을 증명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신이 반역의 근본이다. 불신으로부터 야심과 자만이 배은망덕과 더불어 나왔다.¹¹⁰⁾

여기서 보듯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죄를 지었다. 이러한 모습,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불신이자 배반이고, 이를 통해 인간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 전에는 영적으로 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의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창조자에게서 이탈한 것은 그의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탈은 이 세상과 자연의 질서 자체를 깨뜨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담의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고 그가 구비하고 있던 지혜와 정직과 진리와 공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의로움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대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지와 무능과 같은 최악의 무서운 것이 남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은 아담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즉 인류 전체가 받아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모두를 비참함 속에 빠뜨리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전적 부패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원죄와 죄의 유전에 관한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원죄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죄가 유전되는가’의 문제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비롯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한 사람의 죄책으로 모든 사람이 죄책을 지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상가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칼뱅은 유전적인 부패를 주장하나 어거스틴의 생물학적 유전 사상은 따르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죄의 유전적 속성에 대하여 영혼을 죄의 유전적 통로로 보며 출생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한 타락에 빠져있다는 것을 논증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칼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패했고, 자녀는 다시 그 후손에게 대대로 병을 옮겨 주었다.

110) *Institutes*, II. 1. 4.

바꿔 말하면,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간 것이다. 전염은 육이나 영혼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염은 처음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친품을 가지며 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¹¹¹⁾

이처럼 그는 원죄가 부모로부터 육체적 출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부패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원죄 ‘유전설’의 불합리성을 충분히 인식한 갈뱅이였지만, 유전설의 표현을 빌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죄과에 의해 만인이 죄를 입게 되어 죄가 보편적인 것이 된다.”¹¹²⁾는 죄의 보편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갈뱅은 유전적인 부패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펼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갈뱅은 “썩은 뿌리에서 썩은 가지가 나왔으며 여기서 나온 작은 가지에 부패가 전달되었다.”¹¹³⁾고 말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인간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인간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죄의 저주로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에게도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젓먹이들까지도 모태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닌 자신의 허물에 있다는 것이다.¹¹⁴⁾

111) *Institutes*, II. 1. 7.

112) *Institutes*, II. 1. 5.

113) *Institutes*, II. 1. 7.

114) *Institutes*, II. 1. 8.

둘째,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 즉 욕욕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¹¹⁵⁾고 같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갈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욕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 나아가 전적으로 인간은 욕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¹¹⁶⁾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갈뱅이 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 자기들의 타락된 마음과 그 결과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한 파멸은 인간 자체의 죄악성에서 오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¹⁷⁾ 이 문제는 이어지는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갈뱅에게 있어서 죄의 본질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속에서 죄를 죄 되게 하는 교만을 낳았다. 결국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창조질서의 파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의지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첫 사람의 잘못된 의지로 인해 전 인류가 죄책에 빠지게 되었는데, 원래의 의지는 어떠했고, 타락 후의 의지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B. 죄와 자유의지의 문제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졌는가에 관한 문제는 수많은 논쟁을 야기시켰다. 이에 대해 갈뱅은 인간 의지의 노예성을 주장한다. 갈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창조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는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

115) 위의 책.

116) 위의 책.

117) *Institutes*, II. 1. 11.

의지를 인간 구원의 기초로 삼아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의지는 구속된 신자들의 중생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갈뱅에 의하면 타락 전 의지와 타락 후 의지는 구별되어야 한다.¹¹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갖는다. 고대 교부들이 자유의지를 찬양할 때 바로 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자유의지의 성격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은 인간 본성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 필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악하게 되었다. 즉 인간은 그 본성에 악을 갖춘 채 창조된 것이 아닌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악에 의해 매여있는 의지이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의지는 남아 있지만 그 때 의지는 오직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지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자유의지는 없다. 이처럼 인간에게 죄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범죄한다. 인간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 후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 노예의지가 된다. 즉 인간의 영혼은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타락한 본성은 회복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한다.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는 스스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은총의 수용 능력이 인간 안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의지마저 없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의지를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은총의 힘에 의해 자유의지는 다시 확립되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은총이 없다면 사람의 자유는 의로부터 멀어지게, 죄에게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의지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¹¹⁹⁾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다루면서 갈뱅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그 중 하나는 창조의 완전성, 혹은 위대성이다. 창조 시에 인간은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또 하나는 타락의 책임소재이다. 인간은 자유의

118) *Institutes*, I. 15. 8.

119) *Institutes*, II. 5. 8.

지를 들어서 타락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²⁰⁾ 갈뱅은 인간 자신이 자유의지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갈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갈뱅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¹²¹⁾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죄와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내용이 된다. 그렇다면 죄와 악의 기원 문제¹²²⁾와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책임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20) *Institutes*, I. 15. 1.

121)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제1권 창 3:1-3

122) 갈뱅은 그의 저작에서 ‘죄’와 ‘악’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Institutes*, II. 3. 5.) 필자도 본 논문에서는 죄와 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VI. 갈뱅신학에서 악의 기원 문제

A. 악의 종류

이제까지 원죄와 죄의 개념,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 혹은 악은 그 기원이 어디 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간에게 죄책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에서 나타난 죄, 그리고 악은 과연 어디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이 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제 악을 세 종류로 분류해보면서 그 기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인간으로부터의 악과 고난

인간에게 오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포함한 악은 그 기원이 어디 있을까? 인간의 악은 인간 자신의 문제로부터 온다고 갈뱅은 말한다. 특히 이것에 대해 갈뱅은 인간의 “악한 욕망”으로부터 온다고 표현하였다.¹²³⁾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그러한 일(악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할 정도로 방종과 정욕에 깊이 빠져 앞뒤 분별없이 행동한다.”¹²⁴⁾고 갈뱅은 말한다. 이러한 방종과 정욕과 같은 인간의 오류와 죄가 인간이 겪는 고난과 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악의 실질과 죄책은 사악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¹²⁵⁾

뿐만 아니라 갈뱅은 인간의 악이 인간의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일어난다고도 보았다.

더군다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우

123) *Institutes*, I. 17. 5.

124) 위의 책.

125) 위의 책.

리를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잘못들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유지되며 우리가 최후의 구원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자극하시는 것입니다.¹²⁶⁾

이상의 설교문에서 보듯이 갈뱅은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인간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약함도 고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할 기를 기울이기 위해서 고난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악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 나태함, 약함 등 인간 안에 있는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¹²⁷⁾ 그러나 갈뱅은 이러한 인간 안에 원인이 있는 악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²⁸⁾ 이러한 갈뱅의 주장은 그의 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의 주요 핵심 사항이 된다. 이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2. 마귀로부터의 악과 고난

마귀로부터의 악과 고난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갈뱅의 마귀론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귀의 정체성을 알아야 마귀를 통해 오는 악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 갈뱅의 마귀론

갈뱅은 마귀를 이 세상 신이며(고후4:4), 이 세상 임금이요(요 12:31), 무

126) Sermon de Mardy 25e Du juding 1549, Jeremie 15:6-1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1), 이오갑, "칼빈의 신정론," 『말씀과 교회』 11권, (2006): 192에서 재인용.

127) 위의 책. 193.

128) *Institutes*, I. 17. 5.

장된 강한 자(눅 11:21, 마 12:20), 공중 권세 잡은 자(엡 2:2), 우는 사자(벧전 5:8) 등으로 언급한다.¹²⁹⁾ 갈뱅이 마귀를 이렇게 묘사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와 경계심을 더하여 투쟁할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또한 성경은 우리와 싸우는 원수는 하나나 둘이 아니고 군대라고 가르쳐준다. 이런 성경의 증거는 우리가 원수들의 수가 적다는 오해를 하지 말 것과 그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갈뱅은 말한다. 마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라고 불리우며,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부단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갈뱅은 강변하고 있다.¹³⁰⁾

마귀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궁극적 목적에 관계되어 있다.¹³¹⁾

갈뱅은 마귀에 대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다. 우선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은 마귀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증거하며,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언젠가 진리에 서 있었으나 “거짓의 아버지”가 되어 그 스스로 타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¹³²⁾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권능의 고삐로서 사단을 묶고 속박하시므로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종을 들게 되어 있어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창조주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³³⁾ 그러나 사탄의 속성에 대해 갈뱅은 “사탄이나 악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휘말려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¹³⁴⁾ 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129) *Institutes*, I. 14. 13.

130) 위의 책.

131) 박해경, 『갈빈의 신론』 (서울: 이컴비즈넷, 2005), 255.

132) *Institutes*, I. 14. 15.

133) *Institutes*, I. 14. 17.

134) *Institutes*, I. 18. 4.

마귀의 행위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댈 수 없을 것이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35)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탄이 행하는 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b. 마귀로부터의 악과 고난

마귀로부터 오는 악과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갈뱅은 욥기 설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고삐에 묶여 있다는 것과 그에게 위로부터 허용되는 것이 아니면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¹³⁶⁾라고 말하며, 하나님 주권 아래 마귀의 종속됨을 말한다.

이처럼 갈뱅은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의지에 강조점을 두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갈뱅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최상의 위치에 두었다. 마귀는 그 권능 아래에서, “마치 멍에처럼 하나님의 손에 바짝 붙잡혀 있다”고 한다. ¹³⁷⁾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존재하며 활동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마귀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대두된다. 이에 대해 갈뱅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한다.¹³⁸⁾ 즉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고 공격하며,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마귀는 하나님에게 대적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마귀가 그 본성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⁹⁾ 이에 대해 갈뱅은 사울의 예를 든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

135) *Institutes*, I. 17. 5.

136) Jean Calvin, *Sermons from Job*, 서문강 역, 『욥과 하나님: 칼빈의 욥기강해』 (서울: 지평서원, 1996). 61.

137) *Institutes*, I. 17. 2.

138) *Institutes*, I. 14. 17.

139) *Institutes*, I. 18. 3.

해 그는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으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사울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분이 자신의 정의의 복수를 행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¹⁴⁰⁾

여기서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갈뱅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갈뱅은 마귀에 대해 설명하며 스스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마귀에게 악을 허락하셨다는 말을 한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나 마귀에게 악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갈뱅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악의 기원의 문제를 찾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갈뱅은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위해, 다시 말해 신자들이 전투에 숙달되도록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신다고 답하였다.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기습하게 하시며 저들의 평안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패배시키게 하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게도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¹⁴¹⁾

이처럼 갈뱅은 마귀의 공격과 악을 하나님의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악한 욕망을 통해 스스로 고난과 시련을 자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논문은 더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악과 고난

악의 기원에 대해 갈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악과 고난에 대해 또한 말한

140) *Institutes*, I. 18. 2.

138) *Institutes*, I. 14. 18.

다. 그러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악과 고난’으로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갈뱅은 하나님께서 악을 주시는 것은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또는 나약하고 부족할 때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그분의 집에 부름을 받게 된다고 한다.¹⁴²⁾

이처럼 갈뱅은 악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의지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갈뱅은 인간의 죄와 나약성에 의한 악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교육이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결국 악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갈뱅이 말한 악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은 비교적 강한 의미를 띤다.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 거의 명령의 의미를 가진 허락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갈뱅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외심을 가지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분이 원하셨다면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허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하시기를 원했던 것을 명령한 것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아담의 타락은 바르고 의로운 명령을 전복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고, 그분의 의에 대한 위반이었다. 타락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¹⁴³⁾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갈뱅은 타락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화시킨다.

142) *Institutes*, I. 18. 2.

143) Jean Calvin, *Calvin Commentary*, 제1권 창 3:1-3

이러한 사상 속에서 갈뱅이 ‘허락’에 ‘명령’이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사탄과 불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으므로 그들의 악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목적으로 인도되고, 그들의 범죄와 악행은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순한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그것이 당신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런 기만책을 물리치신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 하나님이 그 자신 안에서 결정하신 것을 넘어설 수 없다.¹⁴⁴⁾

악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개념 속에서 그것을 도구로써도 사용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귀를 자신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대로 움직였던 것이 분명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사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마귀를 움직여 그가 작용하는 대로 활동하게 하며 그가 부여한 것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¹⁴⁵⁾

특히 갈뱅은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는 경우를 몇 가지 지적한다. 그것은 신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할 때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한 진노의 사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¹⁴⁶⁾ 더불어 『기독교강요』에서 갈뱅은 마귀뿐만 아니라 불신자 혹은 불경건한 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내용을 율기 1장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사탄은 이 거룩한 사람을 괴롭히도록 간단히 허락을 받은 것 같지만 주가 주시기도

144) *Institutes*, I. 18. 1.

145) *Institutes*, I. 18. 2.

146) 위의 책.

하고 취하기도 했다는 말씀이 사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원작자고, 사탄과 강도들은 사역자들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 그래서 사람들이나 마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들의 노력을 자신의 심판들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돌려놓은 방향타를 잡고 계신다.¹⁴⁷⁾

B. 두 가지 논쟁점

갈뱅의 악의 기원에 대한 사상을 살펴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징계하기 위해서 악을 허락하고 사용하시기까지 한다고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뱅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논쟁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 분은 악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속에서 진행되는 악의 행위의 책임이 왜 인간에게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1.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신가

a. 갈뱅의 의견

이 주제에 답을 찾기 전에 먼저 갈뱅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갈뱅의 주장을 보면 그가 세상의 악이나 죄를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갈뱅의 예정론을 볼 수도 있다. 즉 갈뱅이 어떤 이들은 구원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선택되었다는 갈뱅의 주장이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갈뱅이 말하는 하나님을 일방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이다. 갈뱅은 하나님을 악의 기원으로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강요에서 영벌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들 모두는 타락했고, 악으로 물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폭군적 잔인성으로써가 아니라 합리적 공평성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비난할

147) *Institutes*, I. 18. 1.

수 없다.”¹⁴⁸⁾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갈뱅은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¹⁴⁹⁾ 그리고 욥기 설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폭정’이나 과도한 지배를 말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¹⁵⁰⁾라고 말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갈뱅이 하나님을 악의 기원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갈뱅은 마귀에 대해 언급할 때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마귀의 사악함을 생각해 볼 때 또 다시 악의 기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귀가 어떻게 사악한 존재가 되었냐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갈뱅은 “첫 번째 창조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타락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타락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스스로의 타락 때문에 사악해 졌다고 말하는 것이다.¹⁵¹⁾ 그는 욥기 설교에서도 말한다. “마귀들에게 있는 악은, 그들이 정의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변절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그들로부터 생겨났습니다.”¹⁵²⁾ 이처럼 갈뱅은 하나님이 악의 기원이라는 오해나 비난을 불식시키고자, 마귀의 본성을 그들 자신의 타락에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갈뱅은 마귀의 타락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나 추론은 거절했다. 즉 “그 마귀들의 타락이나 타락의 원인, 방법, 시간과 장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된 것인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성서와 함께 침묵했다.”¹⁵³⁾고 언급함으로써,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갈뱅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한 의지와 계획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목적이 교육과 훈련과 징계 때문이라는 것은 그의 저작에서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다.

148) *Institutes*, I. 18. 2.

149) *Institutes*, 1539/1541, 73-74. 이오갑, “칼빈의 신정론,” 202에서 재인용.

150) Jean Calvin, 『욥과 하나님: 칼빈의 욥기강해』, 75.

151) *Institutes*, I. 14. 16.

152) Jean Calvin, 『욥과 하나님: 칼빈의 욥기강해』, 68.

153) *Institutes*, I. 14. 15.

그러나 칼뱅의 이러한 사상은 많은 비판을 당한다. 특별히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없는 악의 행위들이 벌어졌을 때 그 강도는 심해졌다. 예를 들어 1, 2차 세계대전이나 유대인 학살 문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죽음,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볼 때 그렇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이지 않고 제기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악과 고난 속에서 가르침과 훈련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라 불리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관점이다.

이처럼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나님, 다시 말해 모든 고통을 관람하는 하나님이나 그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대의 무신론적 저항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다.

b.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

그렇다면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또한 신정론에 대한 무신론적 저항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각각의 답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의견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상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이다.··· 우리와 함께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고통 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¹⁵⁴⁾라고 말한다. 본회퍼는 고난 받는 하나님, 십자가의 신학은 능력으로부터 무능력으로,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의 수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본회퍼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력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회퍼는 신정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몰트만(Jurgen Moltmann)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제6장에서 신정의 문제를 논한다. 전통적인 유신론은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지에서 그의 신학은 시작된다. 즉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된 무고한 유대인들의 고통의

154) Dietrich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London: SCM, 1981), 219-20.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한 몰트만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고난은 물론, 모든 무고한 자의 고난까지 짊어지셨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이다.¹⁵⁵⁾ 몰트만에게서는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신정론의 문제가 풀린다. 몰트만이 십자가 사건에서 신정론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단순히 인간의 죄책의 문제와 인간 해방의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확장시켜 인류의 고난의 문제와 인류의 구속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때문에 신정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⁶⁾

또한 엘리사벳 존슨(Elizabeth A. Johnson)은 그의 책 『하느님의 백 한 번째 이름』에서 역시 고통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다. 존슨은 고통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개입한 현실이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⁵⁷⁾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과 기꺼이 연대하며 고통 받는 하나님을 묘사하며, 이것이 곧 포용성과 구원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의 자유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통은 불완전이 아니라 최상의 탁월함이라고 말한다. 고통 받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희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존슨은 신정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¹⁵⁸⁾

마지막으로 유대인 성경학자인 아브라함 헤셸(Abraham Heschel)은 유대 성서를 파헤쳐 성서가 말하는 연민의 하나님, 고통 받는 하나님을 새롭게 예언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¹⁵⁹⁾ 하나님은 자유롭고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세상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역사 안에서 비탄과 기쁨과 분노의 사건들의 도전에 응답한다. 여기에서 신적 권능은 인간의 올바른 행위들을 요구하면서 연민으

155) Jurgen Moltmann, *(Der) Gekreuzigte Gott*, 김균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159-87.

156) 이형기, 『몰트만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48.

157) Elizabeth A. Johnson, *She Who Is: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함세웅 역, 『하느님의 백 한 번째 이름: 하느님 신비에 관한 여성신학적 논의』 (서울: 바오로딸, 2002), 394.

158) 위의 책. 395.

159) Abraham J.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62), 12-18.

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대학살 사건 이후 유대 사상가들은 그 파괴적 악으로 인한 역사적 좌절 속에서 계약의 하나님에 대한 부재 체험의 공포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 후 그들이 하나님 사역에 대해 찾아낸 새로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제한과 그에 따른 고통의 개념이다.¹⁶⁰⁾

이처럼 이 세상에 악과 하나님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는 많은 신학자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 모습을 그려보며 이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로널드 괴츠(Ronald Goetz)는 새로운 정통론의 출현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¹⁶¹⁾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신정론의 문제를 풀 뚜렷한 해결책이나 해답은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칼뱅의 신학사상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칼뱅의 신학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칼뱅의 신학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결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왜 악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가

칼뱅의 악에 기원에 대한 사상을 살펴보면 그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악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오류와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죄인들은 흔히 자기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해 하나님을 공범으로 삼는다든지, 자기들의 타락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은폐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으로 그들 자신의 결백을 내세울 수 없음을 가책받고 있으며 또 그네들 자신들 속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죄악된 일임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만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합법적

160) Elizabeth A. Johnson, *She Who Is: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370.

161) Ronald Goetz, "The Rise of a New Orthodoxy." *Christian Century* 103/13 (16 April 1986), 385-89.

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악의 실제와 오류는 악한 인간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악인들의 손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돌릴 수 없다.¹⁶²⁾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선의에 의한 것일 뿐이다. 악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으므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갈뱅은 말한다.¹⁶³⁾

또한 앞장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에서 서술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귀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마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나님에게 대적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갈뱅은 마귀로부터 생기는 악과 고난의 책임까지도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원하셨다고도 말하는데, 그 타락의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 과연 이러한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는 갈뱅 신학의 악의 기원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생기는 역설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론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162) *Institutes*, I. 17. 5.

163) 위의 책.

VII. 결론

A. 요약

본 논문은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악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종교개혁 신학자인 칼뱅의 신학 사상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 논문이다. 칼뱅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하여 칼뱅의 사상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 가운데 있는 죄, 그리고 악의 문제를 다루며, 칼뱅에게서 나타나는 사상의 특징과 오류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칼뱅의 신학 형성의 배경을 알아보았다. 신학 사상 형성의 배경을 알기 위해 칼뱅의 생애와 시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칼뱅에게 있어서 중요한 회심 사건과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칼뱅 신학의 주제들 중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예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칼뱅의 예정론은 칼뱅의 구원 사상과 은총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정론에 나타나는 칼뱅의 사상을 알아보고, 본 논문과 관련있는 칼뱅 신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칼뱅의 인간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칼뱅의 인간 이해를 알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로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 조사하고, 그러한 인간관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죄에 대해 살펴보았다. 원죄의 의미와 결과,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러한 죄가 인간의 자유 의지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악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악의 종류는 세 가지 즉 인간으로부터의 악, 마귀로부터의 악, 하나님으로부터의 악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악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살펴보았고, 악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B. 제언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악의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한 하나님인데, 현실의 악의 문제가 그것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전지전능함과 완전 선의 속성을 신에게 돌리고 있는 기독교에게 이 도전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제시되곤 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원론적 방법으로 세계 안에 서로 투쟁하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선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악과 죄는 신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이원론은 페르시아 종교, 마니교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묵시문학에서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둘째는 일원론적 표상이다. 오로지 선만 존재하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선하고, 악은 선의 결핍이거나 존재의 파괴라는 것이다. 셋째는 변증법적 표상이다. 악은 역사 안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선에 봉사한다. 왜냐하면 선은 부정적인 것의 부정 안에서 그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상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역사신앙 안에서 발견되며, 특히 독일 관념주의의 역사이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깔뱅이 이 중의 두 번째 방법, 즉 일원론적인 방법으로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서술하였다. 그는 완전한 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악과 악한 사탄마저도 종속되어 있고 심지어 사용하신다고 주장하였다. 깔뱅은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악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때론 가르치고, 때론 훈련시키며 때론 훈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깔뱅은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모두 깔뱅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 배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악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며 악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유익이 되는 도

구로서 쓰이고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뱅의 사상은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Theodicy*에서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다루었다.¹⁶⁴⁾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은 신을 완전한 존재로 보는 신관에 바탕을 두면서 완전한 존재인 신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사상이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능한 모든 세계(possible world) 가운데 최상의 세계(the best possible world)를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악을 당장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상의 세계라는 것이다.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신의 창조물인 이 세계는 가능한 세계(possible world) 가운데서도 최상의 세계(the best possible world)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악이 없는 세계 보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 세계가 더 좋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 이 세계에는 추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추한 것이 있으므로 아름다운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또한 악이 있으므로 선한 것이 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은 마치 음악에서의 불협화음이나 그림에서의 배경역할 처럼 결국 세계가 가능한 최상의 세계가 되는데 기여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사상 역시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서 출발하는 사상으로 갈뱅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라이프니츠의 사상도 기존의 신정론과 마찬가지로 악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해되지 않는 악한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최상의 세계(the best possible world)라는 그의 의견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필자는 갈뱅과 라이프니츠의 접촉점을 찾아봄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필자는 여기서 최상의 세계에 허용되는 악이 하나님께서 훈련과 교육,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로써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즉 악의 사용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수단이라는 내용에서 현 시대에 적용시키

164) Gottfried W. Leibniz, *Theodicy: essays on the goodness of God, the freedom of man, and the origin of evi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123-37.

고 배울 것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살아있는 개인의 경우를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개개인이 악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는 경우는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대한 악과 고난의 문제인데, 그러한 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르게 가져볼 수는 없을까? 깔뱅의 주장처럼 거기서 가르침의 훈련의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악의 행위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다고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우리의 상식’ 자체가 어떠한 틀이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악과 고난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가르침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아와 전쟁과 학대, 대학살 등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특히 그것이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여기서 깔뱅 주장의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석함으로 깔뱅 사상의 의의를 찾아보고 싶다. 다시 말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도 인류 역사 전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얻고 배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악의 규모를 줄이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악의 반복을 막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더 큰 선을 위해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악의 허용은 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선이 악을 능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큰 악을 방지하거나 또는 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 허용했다고 말하면서 더 큰 선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악을 제어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악보다 선이, 불행보다는 행복이 훨씬 더 많고 따라서 세계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과 악의 존재가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사상을 깔뱅과 연결시켜 본다면 악이 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교육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가르침의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깔뱅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깔뱅 사상에 근거한 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심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필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부활’로 보고 있다. 부활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미래를 열어주면서 고통 받는 세상과 연대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심화시켜준다. 다시 말해 부활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악과 고난은 그 의미의 진정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활이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사상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다. 깔뱅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그의 사상에 이 개념을 추가한다면 깔뱅의 사상이 많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모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의 고통이 의미 없지 않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사야 1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에서는 전쟁에 대해 슬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슬픔은 고통 받는 이방인, 심지어 적에게까지 뻗어가기도 한다. 이것은 예레미야 48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는 말씀은 대적자들의 비탄 앞에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준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시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방인들의 모습도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에 대한 *Midrash*의 언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홍해에 빠진 애굽 추격자들을 보며 해변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

이 있는데, 이 때 하늘의 천사들도 그 일을 함께 축하하길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이다.¹⁶⁵⁾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애굽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슬퍼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원수의 멸망까지도 비탄하는 하나님이 그 분의 계획하심과 의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갈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악의 사용과 책임에 대한 역설도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갈뱅의 사상, 즉 악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사상은 비판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책임, 더군다나 악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는 갈뱅의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원죄의 근원인 아담의 타락도 하느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란 더 큰 이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복한 죄’였다고 말한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갈뱅이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것은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165) H. Freedman, *Midrash Rabbah* vol.3 (London: Soncino Press, 1939), 285.

참고문헌

1. 동양서적

-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엠마오, 1984.
- 김정훈.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광신대학교 출판부, 1999.
- 박봉량.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 박정용. 『박정용 저작전집 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 박해경. 『칼빈의 신론』. 서울: 이컴비즈넷, 2005.
- 안수도. 『칼빈의 예정론』.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4.
- 이중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8.
- 이형기. 『몰트만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_____.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4.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84.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주재용.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8.
- 최윤배, 『종교개혁자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2002)
-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총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 협회, 1986.
- 황성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학 출판부, 1978.

2. 서양서적

- Bonhoeffer, Dietrich,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London: SCM, 1981.
- Freedman H. *Midrash rabbah*, London: Soncino Press, 1939.
- Parker, T. H. L.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Eugene. Or.: Wipf and Stock, 1997.

3. 번역서적

- Calvin, Jean. *Calvin commentary*, 존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칼빈 성경 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외 3인 역, 『기독교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36),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초판』,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 _____. *Sermons from Job*, 서문강 역, 『욥과 하나님: 칼빈의 욥기강해』. 서울: 지평서원, 1996.
- Henry,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역, 『칼빈주의』.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3.
- Hick, John H. *Evil and the God of love*, 김장생 역, 『종교철학적 이해 :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플라톤까지 신정론의 역사』. 파주: 열린 책들, 2007.
- Johnson, Elizabeth A. *She who is: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함세웅 역, 『하느님의 백한번째 이름: 하느님 신비에 관한 여성 신학적 논의』, 서울: 바오로딸, 2002
- Kuyper, A. *Lectures on calvinism*, 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세종문화사, 1971.
- Moltmann, Jurgen, *(Der) gekreuzigte Gott*, 김군진 역,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9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구원사상』.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2.
- Niesel, Wihelm. *The Theology of Calvin*. 이종성역, 『칼빈의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73.
- Reed. R. C. *The Gospel as Taught by Calvin*. 홍병창 역, 『칼빈주의 뿌리와 열매』.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5.
- Warfield, Benjamin B. *Calvin. Luther. Augustine*.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루터·어거스틴』.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8.
- Wendel, Francois,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김재성 역, 『칼빈』,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4. 논문

- 이오갑. “칼빈의 신정론.” 『말씀과 교회』 제11권 2006.
-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빛과 소금』 2호 서울: 두란노서원, 1985.
- 이창우. “칼빈 신학의 뼈대.” 『개혁신학과 설교연구』 1집 5호 1986.
- 황영훈, “칼빈 신학의 실천신학적 요소들.” 『신학과 실천』 제2권 1998.